

“청문회 통과 하겠나” MB 개각 고심

기재부 장관 후임에 임태희·임종룡 거명 류우익 주중대사 임각 여부 놓고 고민도

이번 주 내에 단행될 예정이었던 개각이 늦어지고 있다. 4·27 재보선 패배 이후, 국정을 다잡을 수 있는 개각 진용 구성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3배수의 후보자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각은 이르면 이번 주 말께나, 아니면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개각은 4·27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고 집권 하반기 국정을 할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 보다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큰 고민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만한 인재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 검증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들의 도덕적 흠결이 나타날 경우,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인사비서관실이 추천한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고 청문회를 통과할 만한 인물이 많지 않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개각의 폭도 유동적인 상황이다. 5개 부처 이상의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반적인 관측이나 막판 변동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이 대

통령은 4일 금융감독원을 불시 방문한 것 외에는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개각 ‘퍼즐’ 맞추기에 골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의 핵심 난제는 류우익 주(駐)중국대사의 임각 여부와 ‘경제사령탑’인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임자 선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초대 대통령실장을 지낸 류 대사의 경우 통일부 장관이 유

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회전 문 측근 인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재보선 패배에 대한 자성을 담아야 하는 개각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도 난제다. 한때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백용호 정책실장, 윤진식 한나라당 의원 등이 물망에 올랐고, 임태희 대통령실장 차출설까지 나왔다. 이와 함께, 관료 출신으로 임영록 전 재정경제부 제2차관, 김영주 전 산업자원부 장관, 허경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장 등이 거명되고 있다.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이동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각의 윤곽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한 곳이 틀어지면 연쇄적으로 개각 진용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 정치권과 언론에서 거론되는 인사들이 아닌 새로운 인물들이 장관으로 내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예고 없이 방문, 감독부실에 대해 질책한 후 권혁세 금융위원장, 김석동 금융위원(왼쪽)에게 재정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오른쪽은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거꾸로 장착된 볼트 때문에...

기체이상 회항 대통령 전용기 결함 원인

지난 3월 기체이상으로 회항하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한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의 결함 원인은 출고 당시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장착된 볼트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영훈 공군 정훈공보실장(대령)은 4일 브리핑에서 “제작사인 보잉의 원인 분석 결과 공기개폐기 작동축을 연결하는 볼트가 위에서 아래로 장착된 상태로 출고됐다”면서 “공기개폐기문이 볼트 아래쪽 돌출된 부분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누적된 피로 균열로 부서

졌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항공기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볼트는 통상 머릿부분이 위로 가게 장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해당 볼트는 구조물과 접촉을 피하기 위해 볼트 머릿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설계됐다”면서 “보잉사에서 최초 제작시 잘못 장착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공군과 대한항공은 지난 3월 21일 공기개폐기문이 부서진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제작사인 보잉사에 공기흡입구개폐기문, 문

작동기, 연결장치 등 결함부품을 보내 정밀분석을 의뢰해 지난 1일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받았다. 공군 관계자는 “항공기 정비는 정비교범에 따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비를 맡은 대한항공에 귀책사유는 없다”면서도 “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한 데 책임을 물어 7100여만원의 임차료 감액조치를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전용기는 지난 3월 12일 오전 8시10분 서울공항에서 이륙하고서 15분 뒤 기체 하부에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해 인천공항으로 회항해 오전 9시50분에 착륙했다. /연합뉴스

“F1 정부차원 특단 지원대책을”

전남도의회 특위 촉구

전남도의회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특위(이하 F1특위)가 대정부 결의문과 호소문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하는 등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F1특위(위원장 김효남)는 3일 소속 의원 11명 공동명의로 결의문을 내고 “다른 국제대회의 국고지원 사

례와 형평성, 전남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F1대회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지원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경주장 준공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지 양도·양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정부가 적극 중재해 줄 것과 전남도가 F1 인프라를 활용해 추진 중인 중진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미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F1 특위는 또 “총리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월드컵·올림픽 등도 수억 여부를 따져 유치했던 경우는 없는만큼 초기 투자비용을 ‘종자돈’으로 보고 국가와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전략적 사고에서 중앙 정부의 관심과 재정적 지원이 간절하다”면서 “총리께서 전남의 큰 방패막이가 돼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비리 협조 공직자 용서 안된다”

추대통령, 예고 없이 금감원 방문 금융감독 부실 질책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저축은행 사태로 드러난 금융기관 감독 부실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방문,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자체 쇄신방안을 보고받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쇄신방안 이외에도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근본부터 개혁을 추진하라고 지시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손으로만(개혁을) 하기에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든다”면서 “새로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관습을 버리고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강한 질책은 이번 사태가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에서 불거진 데다 그동안 방침을 두어온 친서민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어 사태를 더욱 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이 대통령은 국민의 ‘갯간’을 지켜야 할 금융 감독기관이 오히려 비리 사태에 연루됐다는데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 또한, 기득권층의 도덕적 해이를 흐지부지 넘어갈 경우 집권 4년차 국정운영의 동력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반영하듯, 이 대통령은 이날 금감원 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분가량 조목조목 이번 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이나 위원장을 통해서 얘기를 전하고자 했으나 국민 전체에 주는 분노보다 내가 분노를

더 느껴 직접 방문했다”면서 “여러분의 역할에 대해서 부산저축은행 등 대주주와 경영진의 용서 받기 힘든 비리를 저지른 것을 보면서 저 자신도 국민도 분노에 앞서서 슬픔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의 평균 임금이 9000만원이 될 것”이라면서 “생존을 위한 비리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비리는 용서받아서 안 되고, 이에 협조한 공직자가 있다면 역시 용서받아서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금감원 출신의 전직 간부가 인터넷 메일을 통해 직원들이 퇴직 후 자신이 갈 자리를 관리하는 등 불법·탈법 행위가 관습처럼 이뤄진다는 제보를 받고 매우 분노해 참모진에 금감원 방문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파키스탄 “우리 땅서 허락없이 작전하다니...”

미 국 “빈라덴 도운거 아냐” 예산지원 삭감 검토

■ 빈라덴 사살 후폭풍... 갈등 격화

오사마 빈 라덴이 사살 사건을 계기로 테러와의 전쟁에서 파트너십을 유지해 왔던 미국과 파키스탄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과 파키스탄 정부는 처음에는 정면 비난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빈 라덴 사살에 접어들면서 상대방을 직접 비판하거나 심한 불신감을 드러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리언 파네타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3일 시사주간 타임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미국 관리들은 파키스탄이 미국의 오사마 빈 라덴 체포작전을 망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면서 “이에 따라 파

키스탄과의 공조는 오히려 오사마 빈 라덴 세력에게 경제침을 강화시키도록 하는 등 작전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공조를 배제했다”고 말했다. 존 브레넌 백악관 테러담당 보좌관도 2일 브리핑에서 “빈 라덴은 수도 이슬라마바드 외곽 아보타바드에서 포착됐다”며 “이 때문에 파키스탄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의구심을 제기까지 했다. 미국 의회는 한발짝 더 나아가 파키스탄에 제공해 온 연간 13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예산 삭감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선 상태다. 파키스탄은 대통령의 언론 기고문과 정부 성명을 통해 미국을 보다 더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3일 성명을 내고 미군 특수부대가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기 위해 파키스탄 내에서 군사작전을 펼친 것은 “승인되지 않은 일방의 행동”이었다고 비난했다. 파키스탄 내에서는 반미 시위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2일 저녁 파키스탄 중서부 퀘타에서는 수 백명이 거리에 나와 빈 라덴을 추모하면서 미국 성조기를 불태우고 반미 구호를 외쳤다. /연합뉴스



- 1 유자 | 지리적 표시등록 제14호 세계일류식품
- 5 참다래 | 비타민과 미네랄의 보고
- 2 석류 | 식물성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의 보고
- 6 꼬막 | 속살이 쫄쫄깃한 고단백 식품
- 3 고흥쌀(해미,수미) | 깨끗한 땅·물·공기속에서 생산된 안전미
- 7 미역 | 청정해역에서 자라 맛이 좋기로 유명
- 4 마늘 | 천혜의 환경에서 자란 미네랄의 보고
- 8 한우 | 육질의 결이 살아있는 유자골 순한 한우

고흥 8품

고흥에서 나는 여덟가지 특산물